한국산림기술인회
The Korea Forest Engineer Association

한국산림기술인회
NEWSLETTER
2024.04.

立夏 여름의 시작 입하

www.tkfea.or.kr 바로가기

(클릭하시면 한국산림기술인회 홈페이지로 연결됩니다.)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는
가정의 달 5월이 다가왔습니다.

따스함이 아쉬워지는 봄의 끝자락 5월,
바쁜 일상이지만 사랑하는 가족들과
근처 나들이도 떠나며 웃음꽃이 피는 화목한 가정의 달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번달 우리 회 소식은?

교육원 소식

제2기 기본교육과정 운영

2024.04.01 ~ 04.05

기술인회 소식

산림현장 체험 및 소통강화 행사 참여

2024.04.05

기술인회 소식

제2차 미래 발전계획 전략회의

2024.04.08

기술인회 소식

한국치산기술협회 방문

2024.04.15

교육원 소식

제2기 산림경영+공학 전문과정

2024.04.15 ~ 04.29

기술인회 소식

한국산림기술인회 제4대 회장 취임식

2024.04.17

교육원 소식

제3기 기본교육과정

2024.04.22 ~ 04.26

기술인회 소식

제3차 미래 발전계획 전략회의

2024.04.22

기술인회 소식

제4차 정기이사회

2024.04.22

기술인회 소식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심포지엄 참석

2024.04.25

기술인회 소식

산림기술사법정교육CDP인정문제협의회

2024.04.25

기술인회 소식

제4차 미래 발전계획 전략회의

2024.04.29

자세히 보기

한국산림기술인회 4월 보도자료

NEWS

http://www.tkfea.or.kr | THE KOREA FOREST ENGINEER ASSOCIATION | NEWS PAPER

새 수장 맞아...
제4대 진영문 회장 공식 취임

지난 4월 17일 제4대 회장 취임식 개최 … 국회의원 당선인, 유관협 ·단체장 등 100여명 참석

한국산림기술인회 제4대 진영문 회장이 공식 취임했다. 기술인회는 지난 4월 17일 대전 KW 컨벤션 센터(아이리스홀)에서 '제4대 회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산림청을 비롯해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 유관 협·단체장, 업무분회, 대의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성황리에 진행됐다. 행사는 내빈소개를 시작으로, 취임사, 축사, 협회기 이양식, 새 임원진 합동 인사, 기념촬영, 만찬 순으로 이뤄졌다. 특히 임상섭 산림청 차장과 이정헌 국회의원 당선인, 이남호 전북연구원장, 장덕배 한국기술사회장이 직접 축사를 통해 새로 취임하는 진영문 회장의 앞길을 축하했다. 축사에서 임 차장은 "진영문 회장님의 취임 이후 기술인회가 더 새롭게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여기 모이신 회원사 여러분과 기술자 여러분께서도 신임 회장님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덕담을 건넸다.

이 외에도 정동영 · 박희승 국회의원 당선인과 김윤덕 국회의원이 각각 영상 축사, 축전, 축기를 보냄으로써 축하의 의미를 더했다. 진영문 회장은 취임사를 전하며 "급변하는 시대,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꿈을 갖고 도전해야 한다"며 "우리나라 숲도 신개념 산림경영을 통해 지속 가능한 경영으로 정비시켜 나아갈 시기"라고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진 회장은 " 법률 개선, 미래산업 개발 등 많은 일이 산적돼 있는 시점에서 행정, 입법, 산업체가 3축이 되어 나아가야 한다"며 임기 내 유관기관 협력적 관계

사진1 = 한국산림기술인회는 지난 4월 17일 제4대 회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사진2 = 진영문 회장이 김관중 부회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3 = 산림청 임상섭 차장이 취임사를 하고 있다.

구축과 화합 및 소통을 강조했다. 아울러 화합 및 소통과 도전 정신을 중요시하며, 산림분야에서 수십 년간 종사하고 전문성과 리더쉽을 두루 갖춘 진 회장이 새로 이끌어갈 기술인회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사진 = 한국산림기술인회 제4대 회장 취임식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자세히 보기

"새로운 숲을 만나다" 시리즈

몽골 항가이 산맥의 시베리아 낙엽송 숲

글·사진_한국산림기술인교육원 배상원 원장

몽골은 내륙국으로 면적은 156만㎢로 한반도 면적의 7배 정도이지만 인구는 300만 명으로 인구가 적은 나라로 수도는 울란바토르이고 21개 주(아이막, Aimag)로 구성되어 있다. 몽골 중부에 위치한 아르항가이(Arkhangai) 주는 면적 5.5만㎢, 인구 10만명으로 평균 해발고는 2414m로 한라산보다 높고 최고봉은 카랄락타이봉(Kharalagtai peak)으로 3,539m, 가장 낮은 곳은 오르곤(Orkhon) 강과 타미르(Tamir) 강의 합류지역으로 해발 1290m이다.

사진1 = 아르항가이의 시베리아 낙엽송 숲

사진2 = 허르거 화산지대의 낙엽송

아르항가이에서 가장 큰 산악지역인 항가이 산맥은 몽골 서쪽 알타이 산맥과 동쪽 헨티 산맥의 중간에 자리 잡고 있는데 동서로 500㎞, 남북으로 300㎞ 뻗어 있고, 허르거 화산과 차강 노르 호수도 항가이산맥에 있다. 항가이 산맥의 산악대는 해발 1400~1800m의 하부 산악대에는 시베리아 낙엽송 숲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1800~2200m의 상부 산악대에는 자작나무 등 한대와 온대수종이 혼효된 시베리아 낙엽송 숲이 분포하고 있고, 해발 2500m 이상의 고산지대에는 관목들이 자라고 있다. 항가이 산악지대의 주를 이루는 시베리아 낙엽송(Larix sibirica)은 서부 시베리아, 남부 시베리아 산악지대와 몽골 북부 산악지역에 자생하며 수고 20~50m, 직경 1m까지 자라는 침엽수종으로 몽골 산림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울란바토르에서 470㎞ 떨어진 아르항가이 주도인 체체를렉을 지나 언덕을 넘어가면 시베리아 낙엽송들이 길 좌우로 숲을 이루고 있고 초원 한가운데에도 시베리아 낙엽송이 단목으로 자라고 있어 이 지역에 시베리아 낙엽송이 많이 자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서쪽으로 더 가면 화산활동으로 생긴 촐로트(Chuluut)강이 나타나는데 협곡을 이룬 강 주변의 암반 위에도 시베리아 낙엽송이 듬성듬성 자라고 있다.

촐로트강을 끼고 더 가면 허르거 화산과 함께 유명한 차강 노르 호수를 지나는데 길 왼쪽에 있는 커다란 산줄기가 항가이 산맥 줄기로 멀리서 봐도 알 수 있을 정도로 산이 크고 높은데, 산 중턱까지는 나무들이 자라고 있지만 그 위쪽으로는 나무들이 보이지 않는데 호수높이가 해발 2000m를 넘는 것을 감안하면 산 위쪽은 3000m에 가까워 나무들이 못자라는 수목한계선 위쪽인 것으로 보인다.

노연 항가이(Noyon Khangai) 보호구역 쪽으로 들어서면 산 위쪽으로는 시베리아 낙엽송 숲이 자리를 잡고 있고 계곡 쪽으로는 활엽수 숲이 있고 그 중간에는 광활한 초원이 자리 잡고 있다. 낙엽송 수고는 20m 정도이고, 굵기도 한 아름 정도이지만 수령이 큰 나무는 120~190년, 작은 나무도 60년 내외로 수령이 높다. 분홍바늘꽃이 활짝 핀 곳도 중간중간에 분포하고 있는데 이곳은 이전에 산불이 난 곳으로 보인다. 시베리아 낙엽송 숲 외곽의 초지에는 약용식물인 홍경천, 산용담, 투구꽃 등이 자라고 취나물, 초롱꽃, 금방망이, 긴잎갈퀴 등도 같이 자라고 있으며 계곡 쪽에는 키 작은 자작나무(Betula fusca)가 가득 자라고 있다.

사진3 = 노연 항가이(Noyon Khangai) 보호구역의 계곡 전경

항가이의 넓은 초원을 지나 산위로 오르면 사면 하부에는 초지와 전석지 산재하고 있는데 전석지에는 보랏빛 투구꽃이 무리를 이루고 있고, 사면 중부에는 해발고가 높고 척박한 곳이어선지 수령이 50~60년생이지만 수고가 10m 조금 넘고 굵기도 10~20㎝정도인 시베리아 낙엽송이 빽빽하게 자라고 있다. 사면 중부를 지나 위쪽으로 올라가면 평평한 지역이 나오며 다시 초지가 시작되는데 이 초지에도 홍경천, 구름 팽이 꽃, 와송 등이 자라고 있어 이 지역의 다양한 식물상을 보여주는 듯하다.

사진4 = 분홍 바늘꽃이 핀 시베리아 낙엽송 숲

사진5 = 항가이솜 계곡과 초원 전경

사진6 = 전석지의 투구꽃

사진7 = 수령 200년이 넘는 고산지대 시베리아 낙엽송 노령목

초지 위쪽으로는 다시 시베리아 낙엽송 숲이 나타나는데 산 위쪽으로 더 올라가면 굵기가 한 아름은 되고 수고가 10m 정도의 시베리아 낙엽송이 듬성듬성 자라고 있는데 수령이 200년이 넘어 보인다. 산 위로 더 올라가면 커다란 나무들은 보이지 않고 수고가 2~3mn 되는 시베리아 낙엽송이 단목으로 드문드문 자라고 있는 해발 2500m가 넘는 수목한계 지대가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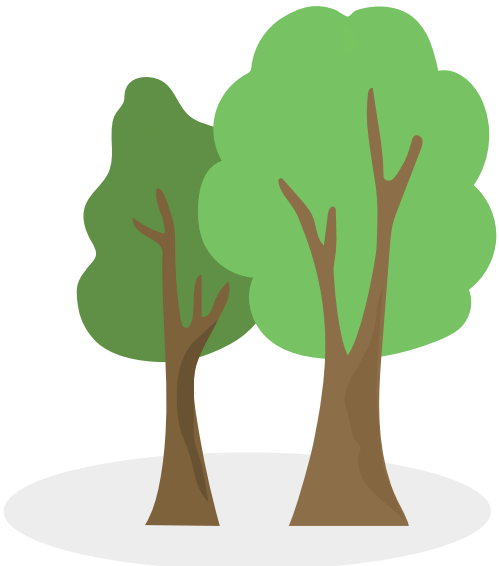
전석지 사이에 굵은 작대기처럼 자라는 주바타 골담초(Shag-Spine, Caragana jubata)가 고산지대 특징을 보여주고 있고 특별히 보호를 받는 설연화(雪蓮花, Saussurea involucrata)도 전석지대 바위 사이에 자라고 있다.

사진8 = 산림한계선의 시베리아 낙엽송

사진9 = 전석지의 주바타 골담초

아르항가이 주는 평균 해발고가 2000m가 넘는 산악지로 허르고 화산, 차강노르 호수 등 자연경관과 숲이 주 면적의 15%를 차지하고 있다. 이르항가이 주에 있는 해발 3000m가 넘는 항가이 산맥의 산악지대에는 다양한 식물들이 자라고 있으며 해발고에 따라 시베리아 낙엽송, 자작나무, 고산 관목 등 다양한 식생과 숲이 분포하는데 시베리아 낙엽송 숲은 대표적인 산악지대의 숲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자세히 보기



아라리 정선!
사과 박사를 꿈꾸며...

글_정선군 독림가(篤林家), 한국산림기술인회 정회원 정병걸

임우리나라에서는 예로부터 재래종 사과인 능금을 재배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계림유사(鷄林類事, 1103)'에 의하면 고려 중엽에는 임금(林檎)으로 표기되기도 하였다. 조선시대 홍만선(洪萬選) 선생이 저술한 '산림경제(山林經濟)'에 사과 등의 재배방법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다. 1901년 윤병수(尹秉秀) 박사가 미국 선교사를 통하여 사과 묘목을 들여와 원산 부근에 과수원을 조성하였는데 이것이 경제적 재배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이때 심어진 품종은 국광, 축, 욱, 홍괴, 유옥 등이었다. 그 후 대구, 원산, 사리원 지방을 중심으로 사과재배가 이루어져 오늘에 이르고 있다.

사과는 다른 과수에 비하여 비교적 냉량한 기후를 좋아하므로, 연평균기온이 7~12℃이며, 4~10월의 기온이 15~19℃, 6~8월의 월평균 기온이 18~24℃인 온대 북부지역이 적합하며, 강우량은 연간 1,000~1,200㎜가 적당하다. 토질은 토심이 깊고 토양산도가 pH 5.5~6.5인 사양토가 적당하여 강원 특별자치도 지역 특히 정선지방이 사과 재배의 적지로 여겨진다.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은 2040년까지 한반도 평균 기온이 1.8도 오르는 고탄소 시나리오를 가정해 과일 재배지 변동을 예측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기후변화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차례상 과일은 사과다. 사과는 지난 30년 동안 주로 전북특별자치도, 충청북도, 경상도 지역에서 재배됐다. 2030년대 내륙 지방에선 사과 재배 적지가 대부분 사라지고, 2050년대엔 강원특별자치도 일부 산지에서만 사과를 재배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과거 중·고교 시험에서 단골 문제로 출제됐던 '대구 사과'는 이제 옛말이 된 지 오래다. 사과 재배지는 청송, 안동, 영주, 장수 등으로 위도를 높이더니 그 옛날 화전(火田)의 역사가 배어있는 정선군 임계면의 고랭지 배추밭을 밀어내고, 정선·평창·영월·홍천을 넘어 접경 지역인 양구·철원·고성까지 거침없이 북상하고 있다.

사과 주산지로 통했던 경북지역 일부 농업인들이 강원 고랭지로 서둘러 이주하는 기이한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으니 농업 현장에서 체감하는 변화상은 지구 온난화 북상 속도 보다 더 빠르다. 해발 고도가 높은 고랭지 사과는 과육이 치밀하고 단단해 식감이 좋고, 당도가 높기로 유명하다. 풍부한 일조량에 일교차가 큰 기후 특성이 맛을 좌우하는 '명품 사과' 생산을 돕는다.

농촌진흥청 등의 자료에 따르면 2050년쯤 국내 사과는 '강원산(産)'이 대세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감자'로 대표되던 강원특별자치도의 애칭이 '사과'로 바뀔 날도 머지않은 것 같다. 필자는 반가움보다 위기감이 앞서는 것은 기후변화가 남의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1980년대 초 정선에서 산림공무원(산림청 정선국유림관리소)으로 근무하면서 산림보호 순찰을 위해 이륜차로 정선읍 광하·귤암·가수리, 신동읍 운치·덕천·조동리, 임계면 용산·덕암·골지리(琄문래리) 등 강변 지역을 중심으로 소규모 사과 묘목을 심은 것을 목격했다. 현재 정선군 지역에 40여 ha(약 120,000坪)의 산림을 10여 년 째 경영하고 있으면서 산벚나무 개화 및 산나물 채취 시기가 매년 앞당겨 짐을 피부로 직접 느끼고 있다. 일부 사람들은 정선지역이 '명품사과' 생산의 적지라고 말하는 소릴 듣는다. 우리나라 사과의 주산지는 아직 경상북도 주변 지역으로 수십 년간

사과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 지역들이 전국 생산량의 약 63%를 점유하고 있다. 2022년을 기준으로 전국 재배면적 1~2위는 안동시(2,985ha)와 청송군(2,831ha) 이다. 이어서 영주시(2,604ha)와 의성군(2,287ha)이고, 인근 지역에 봉화군(1,560ha), 충주시(1,396ha), 문경시(1,390ha)가 주 생산 지역이다. 정선지역은 259ha 면적에 약 7천여 톤 생산 중이며, 근래에 재배면적이 확대되는 추세이다.

사과 재배의 확대와 생산량 증가를 위해 정선군, 인제군, 철원군 등에서는 전문 농업인 육성책으로 시장·군수가 농업대학장을 맡아 사과대학교를 개설하여 1년 동안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정선군에서는 2009년부터 아리아리정선 농업대학을 개강하여 지난해까지 15회, 1,013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여 귀산촌 농업인에게 사과 재배 전문 기술을 전수해 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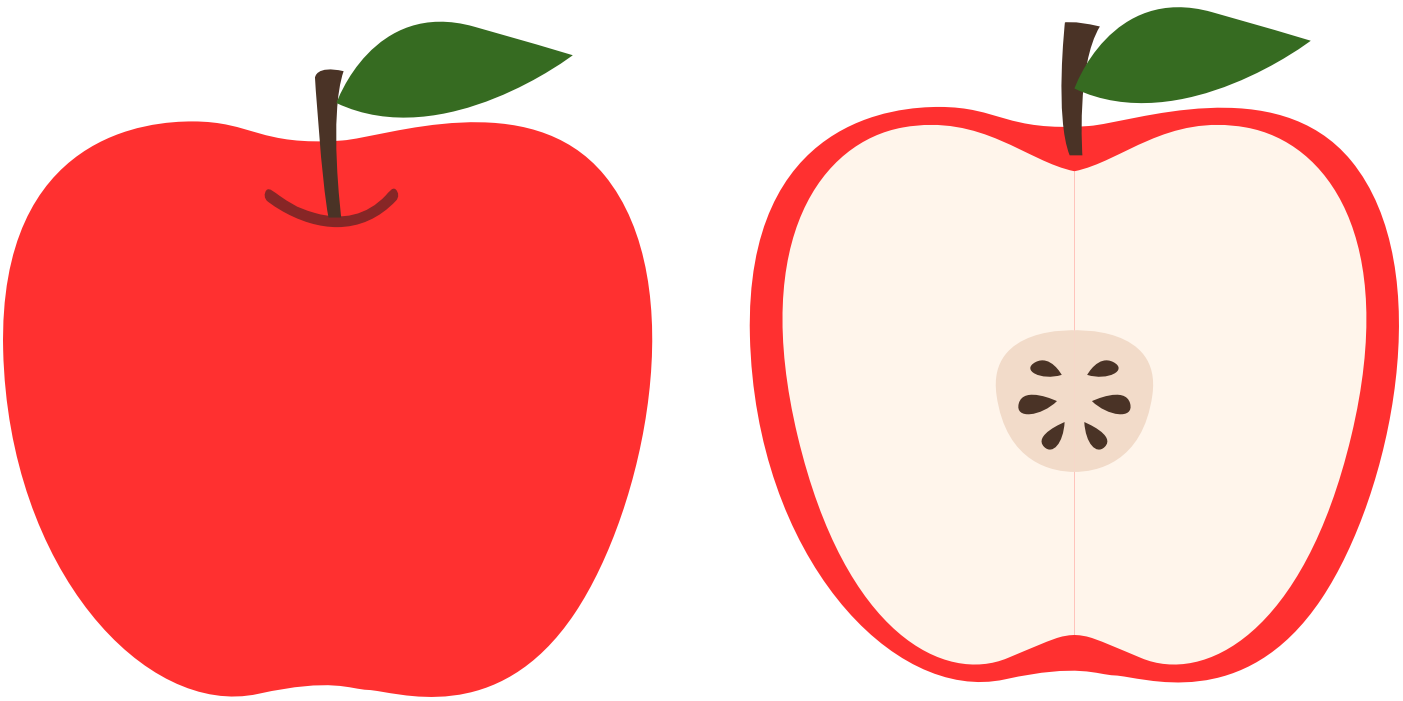
정선군의 사과 전문학과는 주 1회 매주 목요일 강의가 진행되며 총 23회, 112시간의 학사일정을 통해 사과 수형 및 정지 전정, 사과 결실 관리, 병해충 진단 및 방제기술, 사과 품질관리 등 명품 사과 재배 전반에 걸친 이론과 실무기술을 습득하게 된다. 특히, 교육비(수강료, 실습비, 교재비)는 전액 무료로 운영되며, 5월(농번기)과 7월(혹서기)에는 수업을 제한하는 등 농업이 주업인 교육생들에게 편의가 제공된다. 정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경천)에서 주관하여 전체 교육일정과 실습과정을 소화할 계획이다.

필자는 농업과 임업은 공존 관계라고 생각하기에 임계 지역에 소재한 임야 일부를 산지의 산림소득작물(우산고로쇠 수액 등)과 연계하여 농지(田)와 함께 사과나무를 심어 농·임업 복합경영을 하고자 한다.

이에 재배기술을 배우고 익혀 고품질의 사과를 생산·공급하여 지역사회의 경기 활성화와 국민들에게 청정 먹거리 제공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고자 아리아리정선 농업대학에 지원, 합격하여 지난 2월 15일에 동료 신입생 50여 명과 함께 입학식을 치렀다. 아리아리정선 농업대학장인 최승준 정선군수는 입학식에서 '힘차게 도약하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 아리아리 정선 농업대학의 교육과정을 전문화하고 전문 농업인을 육성하여 정선군의 농업·농산촌 발전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우리 동료 신입생들을 대표하여 사과 재배 기술교육을 통한 전문 농업인으로 향하는 배움의 길을 열어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고,
사과 박사를 꿈꾸며 희망의 길을 걷고자 한다.

자세히 보기



산림청, 입업문야 최초 외국인 근로자 도입!

산림청

산림 르네상스

임업분야 최초 외국인 근로자 도입

고용허가제(E-9) 통해 '24. 3회차(7월 예정) 부터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임업분야 외국인근로자 도입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근로자 고용 신청
'24. 3회차(7월 예정) 부터 실시

임업분야에 **신규 도입**되는
외국인력은 1천명

법인사업자로 등록(한국표준산업분류상 '임업'(020) 중
임업 종묘 생산업(02011), **육림업**(02012),
벌목업(02020), **임업 관련 서비스업**(02040)

사업주의 외국인 고용신청 조건

1. **내국인 구인 노력**(워크넷 등을 통해 구인신청, 7일 이상)으로 전부 또는 일부를 **채용하지 못한 경우**

2. 내국인 구인신청을 한 날의 2개월 전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 고용조정으로 **내국인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았을 것**

3.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 **임금을 체불하지 않았을 것**

4. 신청일 현재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가입

외국인근로자 임업특화교육

외국인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과 현장 적응력을 제고

* 전문교육기관에서 4주간
임업의 기초, 안전사고예방 및
응급처치, 기본장비 사용법
교육

산림사업의 시기별 업무 변동량을 고려 「근무처 추가」 제도 마련 예정

사업장 이동이 가능

원사업장 ⇄ 추가사업장 (파견 / 복귀)

* 근로계약기간 만료시 원사업장 자동복귀

외국인근로자 도입 효과

청년층 외국인력 도입으로 입업현장의 **고용안정, 인건비 경감, 안정적인 산림관리 기대**

자세히 보기

2024년 제19회 전국 산림생태복원 기술대전

공모부문

부 문	내 용 안 내
시공사례지	산림복원 기술 및 공법을 적용한 사업지로 기술성 및 차별성이 우수한 0.2ha 이상의 복원지
연 구 사 례	산림복원 기술 및 공법과 관련되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연구사례
아 이 디 어	산림복원 기술 및 공법과 관련된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하여 창의적이고 실현가능한 정책·기술적 아이디어

참가신청

| 참가자격 | 산림생태복원을 생각하는 국민 누구나(개인 및 기관)

| 신청방법 | 협회 누리집(www.kfca.re.kr)에서 신청양식을 다운받아 E-mail 접수 (우편가능)

- e-mail 접수처 : htaechul@kfca.re.kr
- 우 편 접 수 처 : 35261 대전광역시 서구 문정로 28 청솔빌딩 8층 (탄방동 600) 한국산지보전협회 산림생태복원센터
- 시 공 사 례 지 : 시행기관과 기술진이 공동신청 가능 (동일 대상지 중복신청 불가)

| 접수마감 | 2024. 7. 12. 18:00까지 (마감시간 이내 도착분에 한해 인정)

심사일정

1차 서류심사	2차 발표·현장심사
2024. 7. 15.(월) ~ 7. 26.(금) (서류결과 발표 : 7월 31일)	2024. 8. 19.(월) ~ 8. 28.(수)

*심사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시상내역

구 분		상장 및 상금	상장 수
시공사례지	대 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 500만원	1
	최우수상	산림청장상, 300만원	2
	우 수 상	한국산지보전협회장상, 100만원	1
연 구 사 례	우 수 상	한국산지보전협회장상, 100만원	1
	장 려 상	한국산지보전협회장상, 70만원	1
아 이 디 어	우 수 상	한국산지보전협회장상, 50만원	1
	장 려 상	한국산지보전협회장상, 30만원	1

*공모전 입상자는 별도의 사례집 제작에 필요한 원고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산림복원 워크숍에 참석하여야 함

결과발표 2024. 9. 2. (협회 누리집 공지사항)

시상일자 공모당선자에 한해 개별통보

문 의 산림복원 콜센터

☎ 1577-3982

주최 산림청 주관 산사랑 국민운동 한국산지보전협회 KOREA FOREST CONSERVATION ASSOCIATION

자세히 보기

한국산림기술인교육원 5월 교육과정 안내!

5월 20일(월) ~ 5월 24일(금) 제2기 녹지조경전문과정

5월 27일(월) ~ 5월 31일(금) 제2기 경영기술전문과정

※ 과정별 클릭 시 해당 과정 교육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대면+대면
혼합 교육

150명 모집

교육신청

제2기 녹지조경전문과정(클릭)

제2기 경영기술전문과정(클릭)

※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교육신청이 가능합니다.

※ 해당 교육은 **최소인원(40명)** 미충족 시 폐강될 수 있습니다.

※ 하반기 법정교육은 산림청 지침에 따라 **비대면(4일)+대면(1일)**로 진행할 예정으로,
교육일정은 추후 추가개설될 수 있습니다.

교육일정 확인 후 신청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9	20	21	22	23	24	25
	제2기 녹지조경전문과정					
26	27	28	29	30	31	
	제2기 경영기술전문과정					

교육원 홈페이지 가기

2024년도

비대면·대면 교육일정

비대면·대면 혼합 교육

신청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교육신청 바랍니다.

※ 하반기 법정보수교육은 산림청 지침에 따라
비대면(4일) + 대면(1일)로 진행

교육일정 자세히 보기

Family Month

사랑하는 우리가족

5월 가정의 달

"가족과 함께하세요"

한국산림기술인회
The Korea Forest Engineer Association

한국산림기술인회 소식,
더 궁금하다면?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

한국산림기술인회 SNS 채널에 접속하세요

친구추가

가입하기

이웃맺기

(클릭하시면 해당 SNS로 이동됩니다.)

한국산림기술인회
The Korea Forest Engineer Association

주소 (35209)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809, 6층(둔산동, 사학연금회관)
대표전화 1522-5936 (산림기술정보통합관리시스템)
1533-5160 (한국산림기술인교육원 및 회원문의)
대표팩스 (042) 489-8581 / www.tkfea.or.kr

※ 회원 여러분의 제안과 리뷰를 기다립니다. shekdms@tkfea.or.kr로 보내주세요. 보내주신 의견을 선정해 소개해드립니다.

※ 본지에 수록된 외부 필자의 원고는 한국산림기술인회의 견해와 다를 수 있으며,
뉴스레터에 게재된 글, 사진, 일러스트의 무단 전재 및 복사는 금합니다.

발 행 일 2024년 4월 30일(화요일)

발 행 한국산림기술인회 **기획·편집·디자인** 한국산림기술인회 일반사업본부 대외협력단